



예측 트렌드 Trend Forecasting

콘텐츠 유형: 스포츠 리포트타주

취재 및 사진: 김세은

자료제공: The stage

복합문화공간

‘The stage’

공간은 이제 단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변모하고 있다.

기존의 공연, 전시만 하던 장소가 그것들을 한번에 변모하며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 되고 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복합문화공간 중 신촌에 위치한 버티고 건물 내에 새로운 장소를 마련한 ‘The stage’를 찾아가 본다.



사진-2> 공연장 내부(접 이식 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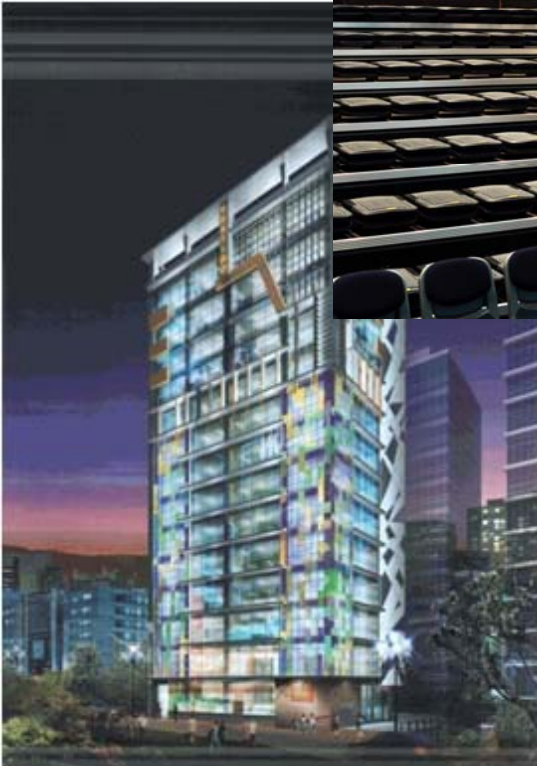


사진-1> 버티고 프로토타입



사진-3> 공연장 내부(접 이식 의자)

올해 3월 (주)유지컬해본이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 ‘The STAGE(더 스테이지)’가 개관했다. “관객과 소통하는 창조적 예술활동공간”을 표방하는 더스테이지는 250석 규모의 소극장으로 2호선 신촌역 인근에 위치해있다.

더스테이지는 ‘복합문화공간’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뮤지컬과 연극을 중심으로 하는 기획 공연과 함께 자체기획 프로그램을 신설해 콘서트, 영상회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학교 동아리, 친목 동호회 등 아마추어 공연을 희망하는 단체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더스테이지는 가로 12m, 세로 19m, 높이 8.5m 규모의 가변 형 무대와 접이 식 객석을 이용해 무대와 천장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무대와 객석의 구애를 받지 않고 다양한 공연 연출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첨단 환기 시스템을 완비하여 지하 소극장의 취약점인 실내 환기를 원활히 해 관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공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이러한 점은 복합 문화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시점으로 뮤지컬이나 음악 콘서트, 영화관등의 공간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공간 활용 측면을 높였으며, 이 공간은 사용자에게 의해 맞춤 식으로 변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관객의 니즈를 위하여 시대에 흐름에 발맞춘 기획력과 공연문화, 주 고객층인 20~30대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연령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노력하고 있다.



사진-4> 공연장 내부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

로우(low) 머테리얼을 사용한 인테리어

전반적으로 벽돌이나 철, 나무 등을 이용하여 내부 인테리어는 외부자제로 많이 쓰이는 재료들이 실내 내부로 들어와 전체적으로 모던한 공간에 새로운 무드를 만들어 내고 있다.

벽면과 문의 경우 철(steel)을 사용하였는데 산화감을 그대로 연출하여 녹이 슨 붉은 계열의 칼라를 그대로 연출 하거나 미 가공 상태의 표면효과를 노출시켰다. 이는 최근 2~3년 사이 건물 외부에 선박을 만드는 강철을 사용하여 벽면처리를 하여 시간이 지만에 따라 산화정도에 따른 칼라 효과를 연출하는 공법과도 비슷한 뉘앙스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티켓박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철판으로 외부처리를 하였으며, 그 안에 LED조명을 매치하였다.



사진-5> 공연장 실내 인테리어

공연의 흔적을 보여주는 앤티크(antique) 오브제

공연장 외에 로비나 분장실에는 이 곳만의 앤티크 한 의자와 테이블을 볼 수 있다.

공연 시 소품으로 사용되었던 의자들을 활용하여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재활용의 측면이라는 점과 배우가 공연 하였던 소품이라는 점에서 그 곳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또 다른 재미 요소를 부가해 주고 있으며, 장식적인 효과까지 주고 있다.



사진-5,6> 분장실 내부



사진-7> 로비 휴식공간



사진-8> 공연장 뒷 편 소품 실

픽킹(Picking) & 핸드메이드 (handmade) 소품

무대 뒷 편 공연을 위한 소품들이 가득하다.

극을 위한 다양한 소품들은 필요한것을 픽킹 하기도 하고 필요에 의해서는 직접 제작한다.



사진-9> 더 스테이지 공연 작품 포스터

더스테이지는 2009년 3월 개관작 뮤지컬 <쓰릴 미>를 시작으로 영화 ‘달콤,살벌한 연인’을 원작으로 한 창작뮤지컬 <마이 스케어리 걸>,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배경으로 한 연극 <날 보러와요> 등 작품성과 흥행성을 겸비한 퀄리티 높은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소극장이 밀집되어있는 대학로를 벗어나 1970년대 공연예술의 메카였던 신촌에 자리를 잡은 문화로 쉬는 공간인 ‘더스테이지’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재 소비자인 관객들의 다양한 니즈 만큼이나 다양한 예술활동을 통해 다시 한 번 신촌을 ‘공연예술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시도와 작품들로 관객들에게 다가 갈 것이다.